

軍, 추가 수사·감사...윤일병 사건 의혹 풀릴까

선임병 4명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지휘관 직무유기·은폐 의혹도 조사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5일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명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삼기에 도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

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흥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다.

한편, 시민 감시단 80여 명과 함께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재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뻔뻔한 가해자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호남 몫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 배제 되나

與 내일 중 당직인선...이 의원에 ‘서진정책’ 중책 맡길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르면 7일 당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킨 이정현 의원에 호남 몫 최고위원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호남 나아가 한국 정치의 신기원을 이룩한 이 의원이 당연히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현재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을 포함해 아예 호남출신 외부 명망가를 영입하는 것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이 의원에게 김 대표가 구상 중인 ‘정치 아카데미’ 호남분원 원장이나 별도 지역화합 특위를 설치해 위원장을 맡겨 ‘서진정책’을 진두지휘하도록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 의원도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제의를 아직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당 지도부의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다른 직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직은 말을 생각이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 당 지도부는 물론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이정현’의 당선을 바라지 않던 분위기가 있었다”며 “또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 의원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당의 중심에 서는 것을 견제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른 당 관계자는 “아무리 싫어도 이 의원에게 최고위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이 사무총장 제의를 거절한 가운데 현재 최고위원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는 점을 감안해 TK출신 3선인 김태환, 장윤석 의원이

여전히 물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쇠신을 추진할 적합한 인물을 고르려는 점에서 수도권 중진을 기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부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파 출신 4선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무총장을 한 차례 지낸 정병국 의원, 평택갑이 지역구인 4선 원유철 의원,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4선 심재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수도권 사무총장을 전제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중 하나를 TK 몫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포항 출신 4선 이병석 의원이 유력한 후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전·현직 의원을 기용하기보다는 외부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는 쪽으로 가울었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가해·방조자 철저조사, 일벌백계 문책”

국무회의서 ‘윤일병 사건’ 질타

세월호 수사·경 무능함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병영 내 가혹행위의 혁파 등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일각에서 ‘인명 거부’ 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론 악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연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과 엇박자에 대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30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 달라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군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권 총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육군 전 장병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영문화를 쇠신해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절박한 충정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권 총장의 사의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 34기인 권 총장은 육군본부 계획관리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9월 육군총장에 취임했다.

권 총장은 지난 6월 22사단 총기사건에 이어 최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안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www.hsegreen.com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